불법 원룸 때문에…남광주시장청년몰 난항

15억원 들여 20개 점포 육성
부지 들어설 2·3층 불법원룸
원상복구·이행강제금 해결안돼
동구청 사업단 구성조차 못해

광주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광주시장에 청년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동구가 시장 종합상가 내 불법 증·개축된 원룸 때문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동구는 현재 사업단 구성조차 하지 못해 예산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에 사업기간 연기 요청을 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0년째 남광주종합상가 불법 원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동구가 원룸 소유주들과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청년몰 조성을 추진, 사업이 자칫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15억원(국비 7억5000만원, 시·구비 각 3억원 등)의 예산을 들여 남광주해뜨는시장 종합상가에 39세 미만 청년상인들이 운영하는 청년몰 20여개를 입점·육성할 예정이다.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한다는 목표다.

청년몰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통시장 내 빈 점포와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공동지원하는 사업으로, 동구는 지난 6월 공모에 선정됐다.

동구는 청년몰 조성을 위해 모두 13명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상가 2~3층(1763.32㎡) 공간을 매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판매시설로 허가가 난 종합상가 2~3층 전체 공간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50여개의 원룸이다. 동구가 해당 공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위반건축물을 원상 회복하고, 불법 원룸에 그동안 부과된 이행강제금 1억8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일부 소유자들은 금융권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동구가 10년 이상 불법 원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몰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원상 회복과 매입 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소유자 중 일부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버텨온 소유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담을 느낀 동구는 현재까지 소유자들과 접촉조차 하지 않았다. 조성사업 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할 부지 매입 등 절차를 시작조차 못해 지난 6월 중기청에 '연기 요청'을 한 상황이다. 또 공간 매입이 힘들 경우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본 예산 외에 별도의 예산 세워 2~3층 공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동구 관계자는 "상인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상인회, 소유자들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근로정신대 아픈 역사 배우러
광주 고교생 24명 일본 간다

'시민모임' 5~9일 일본서
한·일 청소년 교류행사

"근로정신대 아픈 역사 배우러 갑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5~9일 일본 나고야와 도야마에서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역 18개 고등학생 24명이 참석한다.

나고야 교류단은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의 도움을 받아 일제강점기 광주·전남 출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강제 노역을 했던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옛 공장 터, 도난카이 지진 희생자 추도비, 세토 지하군수 공장 등 역사 현장을 돌아볼 예정이다.

또 일본 청소년들과 평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도야마 교류단은 강제동원 현장인 후지코시와 미쓰비시의 지하공장 터널, 윤봉길 의사 암매장지 등을 방문하고 세이사국제고 학생들과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10년 8월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인 단체 '나고야 소송지원회' 초청으로 광주 청소년들이 나고야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 2011년부터 광주시교육청이 후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양국을 오간 한·일 청소년은 모두 156명이다.

교류단은 오는 21일 광주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7기 교류단 일본 활동 소감과 성과를 나누는 보고대회를 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여교사 성폭행 사건
비공개 현장 검증

광주지법 목포지원
공모 여부 집중 점검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3일 경찰의 통제 속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엄상섭)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동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현장검증에는 엄 부장판사 등 2명의 판사를 비롯해 검찰과 박모(49)·이모(34)·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이 참가했다.

현장검증은 피고인들과 피해 여교사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던 식당, 성폭행이 자행된 초등학교 관사,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차량을 타고 오간 동선인 식당과 관사 사이 도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현장검증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여부를 집중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29일 열릴 예정인 재판에서도 피해자를 증인심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의사와 심리상담분석가 등을 증인으로 심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박씨 등 학부모와 주민 3명을 지난 6월29일 구속기소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광주 광산구 기습 소나기…물에 잠긴 도로

3일 광주시 광산구에 시간당 21.5㎜의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하남공단 4번 도로 일대가 물에 잠겨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독자 정찬호씨 제공〉

시간당 21.5㎜ 순간적으로 내려 도로 16곳 역류
광주·전남 오늘도 폭염 속 일부 지역 5~30㎜ 비

광주시 광산구 지역에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양의 소나기로 곳곳에서 도로와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3일 광산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산구 본량동, 하남동, 산월동 등 16곳에서 도로에 물이 역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하남산단 4번로 일대에서는 차량이 물에 잠기는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까지 광주지역에 내린 비는 모두 광주 7.1mm다. 하지만 광산구에는 시간당 21.5㎜의 소나기가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등 24mm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여름철 소나기는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매우 강하게 내리고, 강수량의 지역 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4일 광주·전남지역은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무더운 곳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다.

광주·전남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2~34도 분포, 아침 최저기온은 23~25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와 전남 17개 시·군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4일 전남동부내륙에는 5~3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광주·전남 지역 장마기간은 29일로 평년(32일)보다 3일 짧았고, 강수량은 328.9㎜로 평년(376.3㎜) 대비 87.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울산화력 유해물질 방류 적발 파장

정부, 화력발전소·원전 전수조사키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가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방류한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의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울산해경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의 유해물질 배출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발전소들도 같은 물질을 배출한 정황을 포착했기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국내 화력발전소 53기, 원자력발전소 24기,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복합발전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 여부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발전소들이 울산화력처럼 온배수 거품을 없애는 소포제(거품 제거제)로 유해액체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사용해 방류했는지 여부다.

산업부는 정부 차원에서 사용 중단을 지시한 지난해 8월 이후 각 발전소가 디메틸폴리실록산을 계속 사용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이전에 같은 물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국의 화력발전과 원전으로 조사를 확대한 것은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한 뒤 다시 바다에 배출하는 공정이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해안에 자리 잡은 발전소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고, 이런 공정으로 따뜻해진 물(온배수)을 다시 바다로 흘려보낸다. 온배수가 방출되면 바닷물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포제를 사용한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액체물질로 분류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소포제로 수년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위험하니 인도 올라가라는 경찰에 욕설·폭행한 만취 40대

쌍나팔

○…차도가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서 걸어줄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만취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문모(48)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시 동구 한 차도 위에서 "위험하니깐 인도로 올라가세요"라는 마이크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최모(44)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

○…문씨는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문씨가 술에 취해서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평택 토지 매매

★ 삼성전자 120만평 ★ LG 11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대 후회 없습니다.

개발 토지 1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송탄역 5분 (송북시장) / 토지 184평
오피스텔 65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15억 발생
▶ 매가 12억

개발 토지 2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송탄역 2분 / 토지 358평
오피스텔 (207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37억원
▶ 매가 30억

평택 토지 (소액 투자)
①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서탄 산업단지 1분) / 308평 (평당 146만)
2면 코너 자리 – 현재 도로 개설중 – 수월 교차로 1분 ▶ 매가 4억 5천만
②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 301평 (평당 170만)
마산산단 과 Lg산단 정문에 위치 (원룸부지 빌라부지 특A급 토지) ▶ 매가 5억 1천 700만
③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고덕 신도시 5분) / 613평 (평당 95만) ▶ 매가 5억 8천 235만

010 – 6670 – 9800

경기도 화성 A.P.T 분양전환

화순 시청 2분 !! | 초 역세권 시청역 여의도까지 30분! | 남양뉴타운 개발도시

① 매가 2억 3천 ② 대출 2억 ③ 임대 보 3천 / 월 70만

실 투자 1천만 (천만원에 집한채 마련) (1억에 10채)

지역 → 경기도 , 서울권, 순천 전남권

(전남,순천) 20평형 A.P.T 분양
▶ 시세 → 1억 5백만 ▶ 매가 → 9천만 (융8천만)
▶ 실투자 1천만

010 – 7384 – 7800

오피스텔 및 사무실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6층 – 45평
▶ 최고급 인테리어 (약 5평 저온 찜찔방 1개)
(시설비 약 4천만) (사무실 2개)
▶ 천변로 전망 최고 !! 주차 완비
(사무실 최적합)

★ 매가 1억 4천만 ★

커피숍 임대 (전대정문 2분 원룸 촌 내 위치)	사무실 임대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 13평	▶ 1층 (30평)
▶ 시설비 일체 무료	▶ 리모델링 완비
▶ 단골 손님 다량보유	(화장실 휴게공간 별도 있음)
▶ 보 1천 월 40만	▶ 보 2천 100만

062-382-5500 010-6834-4800